



절가상 춘분을 이틀 앞둔 18일 오전 광주 남구 백운광장 주변 도로가 내린 눈에 얼어붙은 빙판길과 광주도시철도2호선 공사로 정체 현상을 보이고 있다.

/뉴스

봄 맞아요? 때아닌 3월폭설, 출근길 엉금엉금... 당황·한숨

백운광장 일대, 도시철도공사·폭설접쳐 출근길 지·정체
등푼길 나선 어린 학생들은 내리는 눈 보며 ‘함박 웃음’
광주·전남 곳곳에 대설주의보... “시간당 1~3cm 강한 눈”

“봄 맞아요?”

낮이 길어진다는 절가상 춘분을 이틀 앞둔 18일 오전 광주 남구 백운광장.

봄 기운이 무르익어가는 와중 출근 시간대 쏟아진 눈으로 곳곳에서 출근길 지·정체 현상이 빚어졌다.

일대 도시철도 2호선 공사로 일부 차선이 줄어든 상황에 눈까지 내리자 정체를 호소하는 경적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조선대학교에서 백운광장으로 진입하는 구간 불과 2개 차선만이 열린 상황에 정체는 약 1km 구간에 육박했다.

가까스로 정체 구간에서 탈출한 차량들도 빙판길에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바퀴를 ‘실질’ 굴릴 수밖에 없었다.

답답한 출근길에 나선 직장인들이 애

를 태우는 사이 등푼길에 나선 어린 학생들은 3월에 내리는 눈이 신기한 듯 하늘을 바라보며 깔깔 웃었다.

눈을 뚫쳐 서로를 향해 던지다가 하면 조그마한 눈사람을 만들어 양 손으로 고이 천 천히 등교에 나섰다.

함께 등푼길에 나선 부모들은 아이들이 행여나 빙판길에 넘어지지 않을까 노심조사하며 뒤따라 걸었다.

매서운 추위에 시민들은 옷장 안에 넣어둔 두꺼운 외투를 다시 꺼내 입었다.

편파집한 패딩과 털장갑으로 중무장한 시민들은 봄꽃을 시샘하는 듯 들이닥친 추위와 눈 소식에 반가움과 한숨을 교차했다.

시민 최모(30)씨는 “여느때처럼 일어나

출근을 준비하는데 때아닌 눈이 내리면서 급해졌다. 기온이 떨어질거란 소식은 들었는데 눈까지 내리다니 당황스러울 지경”이라고 내리는 눈을 보며 한숨을 내뿜아 쉬었다.

김모(31·여)씨는 “지난주는 덥고 이번 주는 추위 이게 무슨 날씨가긴 하지만 때아닌 눈 소식은 반갑고 운치가 있다”며 “적당히 내리다 그쳐 봄철 눈을 즐겼다는 분위기만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광주기상청은 이날 오전까지 광주·전남을 중심으로 시간당 1~3cm의 강한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예상 적설량은 광주·전남 1cm 내외, 전남동부내륙 1~5cm다.

오전 9시까지 지역별 적설량은 담양 4.8cm, 보성 북내 4.8cm, 광주 조선대 3.7cm, 구례 3.7cm, 곡성 3.5cm, 광양 백운산 3.1cm, 화순 이양 3.1cm, 장흥 유치 2.5cm, 장성 상무대 2.1cm 등이다.

전남 구례와 곡성, 보성, 담양, 장성, 함평, 영광, 광주에는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대설주의보는 24시간 동안 눈이 5cm 이상 쌓일 것으로 예상될 때 발효된다.

기상청 관계자는 “눈이 내리는 곳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고 싸락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다”며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전광훈 기자

광주 ‘옛 보훈병원’ 개발... 행정복합타운될까?

수익성·공공성 갈피잡다 10년 가까이 표류
지나해 말 용역결과... ‘행정타운’ 개발 골자
남구 “3개 안 출출... 상반기 주민의견 수렴”

공회전을 거듭하던 광주 남구의 옛 보훈병원 부지 개발 사업 용역 결과가 나오면서 행정타운이 후속 절차에 착수했다.

수익성과 공공성 사이 접점을 찾던 개발 사업이 ‘행정복합타운’ 골자를 통해 10년에 가까운 표류를 마치고 본 궤도에 오를지 주목된다.

18일 광주 남구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광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수행해온 ‘(구)보훈병원 일원 개발사업 기본구상 용역’이 종료됐다.

용역은 지난 2023년 7월부터 남구 주월동 옛 보훈병원과 보훈청 일대 2만8434㎡ 부지에 대한 개발 방향성 수립 차원에서 진행됐다. 해당 부지는 지난 2013년 남구가 부지 매입을 시작한 이래 현재까지 150여만 규모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용역 결과 산학협력단은 해당 부지에 대해 민간시설 유치와 관련한 ‘행정복합타운’ 개발을 골자로 하는 3개 안을 냈다.

산학협력단은 우선 현재 청사 밑을 해소를 위해 민원실 등 청사 일부 시설을 부지에 이전하는 방침을 제안했다. 또 부지 내 10층 규모 청년복합문화타워를 신축, 창업 등 다양한 청년 정책을 수행하는 허브 기관을 유치하는 내용도 제시했다. 서울올림픽공

원을 예로 든 도심속 잔디 광장 조성 안도 나왔다.

개발 과정에서의 사업비 총당을 위한 민간 자본 유치 필요성도 제기되면서 주거단지, 실버타운 등 민간 복합시설을 짓는 방안도 나왔다.

남구는 용역 결과를 종합해 현실성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개발 계획을 재구성하고 있다. 전남 남구의회에서 제안된 국회도서관 건립 등 국책 사업 유치 또한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남구는 이르면 올해 상반기 중으로 주민설명회를 열고 정리된 계획을 공유할 방침이다.

남구 관계자는 “공익성과 수익성을 적절히 조합해 개발 계획을 수립하겠다”며 “향후 주민공청회를 거쳐 개발방향을 통한 구체적인 계획을 낼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남구는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두차례에 걸쳐 총 130억 원을 들여 해당 부지를 매입한 후 줄곧 개발 뜻을 내비쳐왔다.

수익성과 공공성 사이 접점을 찾던 개발 사업은 2017년 국토교통부의 ‘노후 공공청사 복합 개발사업’에 선정, 한국도지주택공사(LH)와 청년주택을 지어올리기로 합의하면서 매듭짓는 듯 했으나 수익성 문제로 무산됐다.

/박도일 기자

전남 구제역 확산일로... 감염경로 차량? 농장주? 외국인?

전남지역 구제역이 확산일로에 놓인 가운데 감염경로를 두고 차량 또는 사람에 의한 감염 가능성이 양대 의심축으로 제기되고 있다.

18일 전남도 등 방역당국에 따르면 지난 13일 영암군 도포면 한우농장에서 첫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지금까지 8곳에서 구제역이 발생했다. 이 중 7곳은 영암, 나머지 한 곳은 무안이다.

영암 3차 발생지가 농장주와 아내·아들이 각각 운영하는 각기 다른 3개 농장으로 구성된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발생 농장은 모두 10곳인 셈이다.

방역당국은 농장 폐쇄회로(CC) TV와 출입차량 GPS(위치정보시스템)를 토대로 역학조사를 벌인 결과 발생농장 중 2곳 이상을 출입한 사료차량이 단 한 대 있는 것으로 확인돼 차량에 의한 감염 가능성을 면밀히 조사 중이다.

이 차량은 포대사료 운반트럭으로 바이러스 잠복기로 추정되는 지난달 말 이후 농장 60곳을 왕래했고 감염농장 중에서는 3차 발생지인 가족농장과 6차 발생장소인 영암 덕진농장을 오간 것으로 파악됐다. 최초 발생지로부터 3차 발생지는 1.7~3.0km, 6차 발생지는 500m 떨어져 있다.

그러나 해당 차량과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환경검사에서는 구제역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아 유입 경로 추적에 애를 먹고 있다. 사료도 가열처리되고

CCTV와 GPS 추적결과, 감염농장 2곳 오간 사료차량 확인
차량·운전자는 ‘음성’... 톱밥, 왕겨, 일반 차량도 면밀 조사
농장주·외부인·외국인 근로자 해외방문 여부 등도 파악중

있어 바이러스가 생존할 수 없는 구조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특정 차량이 복수의 감염농장을 오간 기록이 확인되긴 했으나 환경검사에서는 검출되지 않아 1차 감염원으로 단정하기 쉽지 않다”며 “해당 차량에 대한 정밀검사와 함께 톱밥, 왕겨, 일반차량 등 다른 차량의 왕래 기록도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사람에 의한 감염 가능성도 적지 않다.

첫 발생지인 영암의 양성축 혈청 검사 결과 지난 2021년 몽골에서 발견된 바이러스의 매우 유사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감염 농장 일부 농장주가 최근 몽골 또는 중국을 다녀온 사실이 있는지 해외 유입 후 인수 감염 가능성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다.

50마리 미만 소규모 농장을 오가는 수정사(수의사)와 물류 거래처 관계자, 농장을 오간 일반인도 역학조사 대상으로 두고 다각적인 분석이 이뤄지고 있다.

외국인에 의한 감염 가능성도 배제

할 순 없다. 도내 축산농가 외국인근로자 749명 중 179명이 영암과 무안 축산농가에서 근무중이고, 이 중 일부는 한우농장에서 일하고 있다.

다만 영암·무안 3km 방역대 안에는 25명이 근무 중이지만 모두 폐지농가(8곳) 근무자고 한우농장은 단 한 명도 없다.

도 관계자는 “구제역은 감염된 동물의 침이나 정액, 수포액, 사람, 차량, 공기 중 비말전파 등이 주요 감염 경로인데 현재로서는 사람과 차량 전파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정밀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방역당국은 매년 4월과 10월 정기 백신접종이 이뤄지는 가운데 3월 중순 첫 감염이 이뤄진 점으로 미뤄 면역력이 약화된 상태에서 바이러스가 침투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영암에서는 코흘림과 침흘림, 식욕 저하 등 복합 증세가 나타난 반면 무안에서는 코흘림 증세만 보여 바이러스 활성도는 영암이 무안에 비해 높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염선호 기자

제48회

보성 다향 대추제

보성에서 피어나는

천년차(茶)의 약속

제48회 보성군민의 날

5.2.(금) 보성공설운동장

군민 화합 피로맨스, 축하공연 등

제3회 남도전국합창경연 페스티벌

5.2.(금)~5.3.(토)

별교채동선음악당

제20회 보성녹차마라톤대회

5.3.(일) 8:00 ~ 16:00

보성공설운동장

품, 하프, 10km, 5km

제21회 일림산철쭉문화행사

5.3.(토)~5.5.(월)

웅치면 웅반리 일림산

제27회 서편제보성소리축제

5.4.(일)~5.6.(화)

보성군문화예술회관

전국 민요소리, 고수 장면대, 주모제

제103회 어린이날 행사

5.5.(월) 한국차문화공원

악기, 체험마당, 놀이마당 등

제3회 보성대일리콘서트

5.3.(토)~5.5.(월)

보성농협하나로마트 주차장

보성 차(茶)를 활용한 공식행사, 특별행사, 기획행사, 차문화체험, 전시/경연, 공연 등

2025.5.2.(금)~5.6.(화)

한국차문화공원 및 보성읍 일원

주최 / 주관

보성차생산자 조합 | 보성다향대추제추진위원회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 농림축산식품부 | 전라남도 | 보성군 | 한국관광공사 | 한국관광협회

※ 축제 일정 및 행사내용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QR 코드